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31일까지 사용 마감

정읍시 전 시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용 기한이 이달 31일로 마감된다. 시는 아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원금은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급됐으며, 지급 대상의 약 98.9%인 10만 1112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5월 31일까지 지역 내에 있는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얼어붙은 시장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식품산업연구, 'GFI
미래정책연구센터' 출범

고창군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연구기관 'GFI미래정책연구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GFI 미래정책연구센터는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부설 정책연구기관으로 군의 문화·관광, 농·식품, 산업·경제, ESG 분야에 걸친 미래 전략 수립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15일 오후 열린 출범식에서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정책연구개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센터의 비전을 공유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 센터가 고창 군민 행정, 의회, 기업 등 소위 민·관·산·학 거버넌스 방식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실천형 정책 연구센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2023년 '지역발전전략'을 신설하여 '김치산업 중장기발전 계획 수립 용역'을 비롯한 정책 연구를 수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활력 도모

정읍 농촌에 255억 투입...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위한 든든한 발판 마련

정읍시 농촌 지역에 향후 5년간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1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호연 부시장, 협약 대상 21개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차질 없는 지원과 성실한 이행을 합의하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할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함께 다졌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 투자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한 농촌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특징이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 지역의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

선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상위 거점 지역에는 복지, 문화, 교육, 체육, 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하위 거점 지역에는 중·저차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해 배후 마을까지 서비스가 원활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계획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7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한다. 대상 지역은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덕천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등 총 7개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성황산 황톳길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

이학수 정읍시장, 성황산 황톳길 세심한 정비 주문

이학수 정읍시장의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성황산 황톳길을 직접 찾아, 더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산책로로 거듭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4일, 황톳길의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을 즉각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시장은 먼저 황톳길 일부 구간의 배수 불량으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저지대 등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주변 토사가 황톳길로 유입되면서 황토 고유의 색깔이 퇴색된 구간은 원래의 자연스러운 색깔을 되살릴 수 있도록 황토를 보완하거나 흙을 뒤집는 방식으로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심한 지시가 이어졌다. 목조계단 가장자리의 말뚝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뚝 높이를 낮추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심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톳길 정비 이후에는 시민들이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세족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목조 배수로의 폭이 과도하게 넓어 보행 안전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발 빠짐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 폭으로 조정하고,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개관

고창의 중심지 전봉준장군 동상 인근에 이전 혁명 성지의 자긍심·접근성 등 높여

고창군이 도시 중심으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이전·개관하면서 혁명 성지의 자긍심 고취에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고창군청 맞은편에서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개관식을 열었다.

이번 기념관은 기존 공음면 구신왕초등학교 부지에 있던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을 고창의 중심지인 전봉준장군 동상 인근에 이전·리모델링한 것으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기존 ‘고창동학농민혁명홍보관’을 민주주의의 시작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의 출발에 끼친 의미를 재조명, 지역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을 끌어 올렸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개 과정, 세계기록유산 무장포고문 등 유물전시, 물론, 디지털 홍보영상, OX 퀴즈 모니터, 포



토존 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체험 콘텐츠도 마련했다.

기념관 옥상에는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선셰이드 시설과 벤치 기능을 갖춘 화단 3개를 조성해 지역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꾸며졌다. 개관식에선 지난 3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112’ 공모를 공모한 ‘청소년 문화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12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같이 진행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 ‘젠결음’ 국회 방문·전략 보고회 개최

부안군이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차기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전략 대응에 ‘젠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군은 지난 9일 정화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실무 방문단이 국회를 찾아 RE100 산업단지, 탄소중립체험관, 세계지질공원센터 등 10개 핵심사업에 대해 정책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상임위원회 의원실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해양자유, 생태관

광 등 부안의 미래 전략산업들을 중심으로 차기 대선공약 채택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동시에 건의했다.

이어 15일에는 부군수 주재로 2026~2027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마지막 전략 점검에 나섰다.

보고회는 각 소관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27건(총사업비 3885억원 규모)의 신규·계속사업에 대해 추진 현황과 부처 의견, 대응 계획 등을 계

계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부처 예산안 편성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각 사업의 논리와 필요성을 정비하고 부처 협의 및 예산요구서를 보완하는 최종 대응 준비 단계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요 핵심 사업을 선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 2차 실무회의

방사선 영향권 30km 실질적 재정지원 확대·제도개선 방안 논의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4일 대전광역시 서대전역 회의실에서 2025년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협의회 소속 16개 지자체 부시장, 팀장을 비롯한 실무진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전 인근 지역 지원을 위한 세원 발굴 연구용역의 중간보고가 이뤄졌으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 주요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FZ, 최대 30km)에 포함된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

진을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대상 주변 지역의 범위 확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재추진, 지방재정법 미적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등 제도개선과 신규 세원 발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러한 실무회의에서는 올해 추진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 방재체계 견학, 대국민 홍보사업, 원전 인근 지역 지원 및 방사능 방재 대책 해외 시찰, 원전 소재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